

효성 수소경제 선점 미래 먹거리 창출한다

효성첨단소재, 내년까지 전주 탄소섬유 공장 4천 t 규모 증설 효성중, 수소충전소 구축 민간법인 참여 등 1조 클럽 재도전

수소차 관련 소재를 생산하고 국내 충전소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효성이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이후 미래 신규 시장 선점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효성은 지난해 유상증자로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마무리한데 이어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방침'에 따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친환경 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증권업계를 비롯한 경제계가 주목하고 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주사인 효성과 자회사 효성티앤씨·효성첨단소재·효성

중공업·효성화학 등 5개 상장사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 예상치는 9283억원에 이른다.

특히 주력사들이 스판덱스 원사, 타이어 보강재용 원사 등 세계일류상품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소경제' 전환에 따른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증권업계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높게 잡고 있다. 효성은 올해 5개사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으면 회사 분할 전인 2016년(1조163억원) 이후 3년 만의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된다.

효성첨단소재는 전북 전주공장에 468억원을 투자해 연산 2000 t 수준의 탄소

섬유 생산공장을 오는 2020년까지 4000 t 규모로 증설기로 했다. 이는 미래 친환경 자동차로 주목받는 수소·압축천연가스(CNG)차, 수소차의 핵심 부품인 수소연료탱크와 CNG 고압용기 제작에 사용되는 탄소섬유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2030년까지 수소연료탱크 수요는 120배, CNG 고압용기 수요는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회사측은 예상하고 있다.

효성중공업도 국내 수소충전소 분야의 독보적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2000년부터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사업에 참여해 압축 CNG 시스템과 수소가스 압축 시스템을 보급해왔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CNG 충전소 200곳 가운데 90곳, 수소충전소 28곳 가운데 12곳을 공급한 실적이 있다. 여경 효성중공업은 정

부차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중인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에도 참여하고 있다.

효성화학도 수소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차량 경량화에 필수적인 폴리프로필렌 생산에 역량을 키워온 만큼 미래 수소경제 시장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제계에서는 이같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효성그룹 종목들에 대한 실적 전망이 반등하고 있다.

화끈한 배당 정책을 밝힌 점도 시장에서 긍정적 기대치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지주사 효성은 최근 주당 5000원에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작년 말 기준 시가배당률이 8.4%에 달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북미회담 D-5...2차 핵담판 '일정표' 관심 집중

27일 만찬·28일 회담 가능성

'성과 중시' 트럼프 '첫날도, 둘째날도 회담' 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제적인 회담 일정표가 어떻게 잡힐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베트남 외교부와 언론 등에 따르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은 첫날인 27일 만찬 회담 후 둘째 날인 28일 오전 회담하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에는 김 위원장과 '스킨십'을 쌓는데 초점을 맞춰 저녁 식사 등의 가벼운 일정을 소화하고 이튿날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것이다. 만나자마자 곧바로 단독 정상회담에 돌입했던 1차 회담 때와는 달리 친교(親交)부터 시작해 본(本) 게임에 들어가는 식의 통상적 정상 외교 절차를 밟는 의미가 있다.

베트남과의 양자외교 일정까지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일정이 촉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는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보다 밀도있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첫날과 둘째날 모두 회담을 하는 시나리오도 만만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다시말해 27일 단독·확대 정상회담 후 만찬을 하고, 28일 추가적으로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는 분

석이다.

특히 성과를 중시하고 사업적 협상 수단이 뛰어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1박2일'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담판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베트남 일간지인 푸오이찌는 이날 "두 정상이 이견을 좁히고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한다면 첫날부터 단독 회담을 하고 다음날 협상을 이어갈 수도 있다"며 "두 정상이 협상은 어려운 의견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갖겠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회담 횟수와 시간표, 형태 등에 따라 두 지도자간의 우의를 쌓는 이벤트성 일정이 끼워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인 데다 한결 여유 있는 시간표를 받아낸 만큼 어떤 식으로든 '소프트 외교'의 성격을 가진 이벤트를 끼워 넣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2차 회담이 이를 일정으로 진행될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출입기자들과 만난 트럼프는 "나는 싱가포르의 첫 여행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김 국무위원장과 이를 동안 만날 것이고 나는 우리가 많은 것을 이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매우 좋은 만남으로 시작했고, 나는 우리가 그것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혔다.

/연합뉴스



나라 밖 씬씀이 사상최대 해외 카드 사용액 21조 넘어

지난해 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이 21조원을 돌파하며 사상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해외 여행객이 늘고 원/달러 환율이 내린 영향으로 해외 씬씀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8년 중 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을 보면 지난해 내국인이 해외에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192억2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2.1% 늘었다.

이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이용금액을 합한 것이다.

지난해 해외 카드 사용금액은 전년(171억4000만달러)에 세운 직전 최고 기록을 넘었다.

작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달러당 1,100.3원)로 환산해보면 약 21조1478억 원이다. 해외 카드 사용금액이 20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주요 배경으로는 해외 여행객 증가가 꼽힌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 수는 2870만명으로 1년 전보다 8.3% 증가했다. 환율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5.18 모독발언 한국당 규탄 집회

21일 오후 자유한국당 3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제주권 합동연설회가 열린 부산 벅스코 앞에서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회원들이 일부 한국당 의원의 5.18 모독발언 관련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932만원 vs 124만원...상위20%·하위20% 소득격차 집계 후 최대

소득 불균형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부유층 소득은 급등하면서 소득 격차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균등화 처분 가능소득 5분위 비율은 5.47배로, 전년 4분기보다 0.86포인트 높았다.

5분위 비율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4분기 기준으로는 최대치다. 5분위 비율이 고소득층인 5분위 평균수

입 소득은 277만3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8% 줄었다.

반면,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3분위(소득하위 40~60%)부터는 소득이 증가했다. 3분위 월 평균소득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410만9800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주로 중사하는 일자리 비중이 증가하고 고용 상황이 악화한 것이 분배 지표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소득 분배 악화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3·1절 100주년 남북 공동행사 무산...北 "어렵다" 통보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올해 3·1절에 개최하려던 남북 공동기념행사가 무산됐다.

통일부는 21일 "북한이 3월 1일에 하는 (남북) 공동 기념행사는 이번엔 어렵겠다고 오늘 공식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북측은 이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조영균 통일부장관 앞으로 보내 이런 입장을 알렸다.

북측은 '시기적으로 공동행사를 준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북측의 이번 통보로 3·1절 100주년 당일 다음 달 1일에 남북이 함께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는 어렵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하기 위해 실무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 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NPL 과 실전경매(기초)

11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강의 일시 ●
조선대 : 3월 8일(금) 주간 3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익 봄.

임대 공장 소유주는 자본없어도 자기 소유 공장 만들어 드림!

2019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9년 2월 1일(금) ~ 2월 27일(수)
- 교육기간 : 2019년 3월 8일(금) ~ 6월 14일(금)
매주 금요일 주간 3시/야간 7시
- 수 강 료 : 22만원(3개월)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상담지도교수 경영학박사 송용욱

H. 010-9416-1200 T. 062)230-7700~2

2019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87기)	광주교육대학교(197기)
모집/과정	·금요일 오전반 2019. 3. 8(금) 09:10(중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9. 3. 9(토) 09:10(특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9. 3. 8(금) 14:10(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9. 3. 9(토) 14:10(고급반)
모집기간	2019. 1. 25(금) ~ 3. 9(토)	
수업기간	2019. 3. 8(금) ~ 2019. 8. 10(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 ~ 13:00 ·오후반 14:10 ~ 18:00	
수료후특전	· 1, 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현문화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범) 취득기회 부여	
수강료	₩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 148-107-307803	₩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 062) 950-3582-4 ·지도교수(선병광) 010-3614-4160	·문 의 : 062) 520-4243 ·지도교수(선병광)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웰다잉전문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 3월 16일 개강 ●

2018. 2. 4일 부터 시행된 '사전명의로의향서의 홍보, 상담, 등록 등 인식교육을 담당할 "웰다잉전문 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모집기간 2019년 2월 11일(월) ~ 3월 12일(화) 선착순 00명
교육기간 2019년 3월 16일(토) ~ 3주(토) 총 30시간
수 강 료 25만원, 자격증비 5만원, 교재비 1만원
계좌번호 광주은행 1107-020-709185 대한웰다잉협회 광주광역시지부
교육장소 KT빌딩 6층(전남여고 옆), (주)리치폴드예셋 강의실
상담전화 ☎ 062)511-0030, 010-5522-9700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명의로의향서 등록기관

대한웰다잉협회 광주지부

★ 본 지부에서는 "사전명의로의향서"에 대한 홍보, 상담, 등록 등의 업무를 무료로 봉사 하고 있습니다.
★ 기관, 단체의 요청 시 전문강사, 전문상담사를 파견합니다.
· 문의전화 : ☎ 062)511-0030 · 팩스 : 062)512-8767